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7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④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4월 14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04. 14



Cover Story

그렇게 몇 번을 행구고 또 행구면 바닷물 냄새가 사라질까.
 후투성이 속옷도 가방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일 눈뜨면 거짓말처럼 네가 내일 입고 갈 교복을 빨았으면...
 급식 먹다 셔츠에 묻은 빨간 김치자국을 지울 수 있었으면...

지난 4월 1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세척해 빨랫줄에 널어놓은 모습

사진제공 조충현

지난 2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무엇보다 함께 힘들었을 안산시민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2년 전 4월의 안산은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있었음에도 지독한 잿빛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생떼같은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의 통곡이 도시 곳곳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잿빛의 도시를 기다림의 촛불로 밝히고 거리 곳곳을 노란현수막으로 수놓은 것은 안산시민들이었습니다. 안산시민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희망과 밝음의 이미지는 전국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가족들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일상을 내팽개치고 거의 매일 전투 하듯 서울을 오갈 때 안산의 이웃들은 숨죽이고 조심스레 이웃의 아픔에 함께했습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가 밤늦게 서울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혹여 누가 될까 싶어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안산의 이런 움직임이 높이 평가하며 이웃 간의 정이 끊어진 요즘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배려와 지원,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했던 수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의 이런 모습을 가족들은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매일을 서울로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들고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당하고 마주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할 때마다 경찰력으로 가족들을 고립시켰고 언론을 통해 가족들의 요구를 왜곡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이 나라는 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존엄성마저 빼앗으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떠돌아다니며 가족들마저 아이들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배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고,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으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온갖 방해로 기간 축소, 청문회 내용 은폐, 특검 불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유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는커녕 더 깊어졌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오롯이 감당하게 된 안산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가장 아프고 힘든 이들끼리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다시 2년 전의 안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핏기 하나 없이 생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촛불을 들고 현수막을 걸어주시던 시민들의 손길을 이제는 저희 가족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2년 전 시민들이 기다림의 촛불을 밝혔다면 유가족들은 진실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2년 전 시민들이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외침을 현수막으로 걸어주셨다면 유가족들은 더 이상 힘없는 국민으로 살지 말자고 모두의 생명이 존엄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이들도 데리고 진실도 밝히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2년 전처럼 다시 한 번 더 안산에서 전국으로 희망과 밝음의 이미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손잡으러 분향소로 나와 주십시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요구는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국민의, 시민의, 아니 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 진실의 행진의 제일 앞자리는 안산시민과 유가족의 자리입니다. 모입니다. 외칩시다. 이루어냅시다.

“ 한 아이의 구체적인 삶을 알면, 절대 잊을 수 없죠 ”

‘생일모임’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공동체



아프지만 함께 기억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 위로가 됐던 시간. 별이 된 아이가 주인공인 치유공간 이웃의 생일모임을 찾았다. 단원과 준우의 생일모임이 있던 날, 사동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 20여 명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이날 함께했다.

생일모임은 아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본 후 친구와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쓴 편지를 읽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수학여행 다녀와서 주려고 했던 생일선물을 끝내 전해주지 못했다는 친척동생의 이야기, 한밤중에 화랑유원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컵라면을 함께 먹던 친구가 많이 그리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한 이들이 연신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하던 아이의 일화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웃다가 울었다. 이날 참석한 최은영 씨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됐지만 정말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아이처럼 느껴져서 기쁘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했다.”고 했다. 준우에 대한 영상과 인터뷰를 보고 이날 편지를 써온 시곡중 이영서 학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아침 세월호 배지를 차고 노란 팔찌를 끼는 것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란 글을 남겼다.

생일모임이 끝난 후에는 평소 아이가 좋아했다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치즈계란말이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겨 걱정이라던 한 사동 주민의 우려와 달리 부모님은 준우가 좋아했던 치즈계란말이를 보고 감동 받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이가 평소 남겼던 여러 흔적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다보니, 한 아이의 삶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엄마마음으로 다가왔다. 이날 생일모임에 처음 참석했던 김연옥 씨는 준우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감히 찾아 볼 수도 없었고, 가끔씩 매체에 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됐구나 하는 마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일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었다고 느꼈다. 준우의 짧은 생을 들었지만 모든 친구들의 생을 알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냥 잊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맘이 들었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416 세월호 행사 일정



[공연] 너를 떠올리는 봄

A-3 2016 416추모음악회 'Remember Forever'
4/6 19:30 안산문화재단 해운이극장 / 고잔동 87

[전시] 너를 그려보는 봄

B-1 일제강점기 시민의소리 (Urban Spots)
4/1 ~ 4/25 안산문화재단 / 단원구 호수동 800
B-2 전시, 볼 : 너희를 담은 시간 107
4/6 ~ 4/27 / 10:00 ~ 19:00 안산문화재단 / 단원구 고잔동 87
B-3 세월호 참사 기억포스터2 - '가까이 지친 함께'
4/1 ~ 8/31 기억저장소 / 고잔동 809-3 현대상가 3층
B-4 기억의 자리 아이들의 교실 3/22 ~ 4/15 안산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 1017기술택은도서관, 초지작은도서관, 꽃우물 작은도서관, 다문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작은도서관, 모우어린아이문도서관, 신갈갯벌 작은도서관, 석수골작은도서관, 이음송작은도서관, 모락모락작은도서관
B-5 자유의 힘! 희망 전시회 [두번째 봄 - 그리움이 꽃이 되어 내리는 날에] 4/1 ~ 4/30 안산생명센터 / 유동로 104
B-6 경기도 미술관 이음의 사랑의 희망
4/6 ~ 8 경기도미술관 1층 전시실 / 단원구 초지동 607
B-7 추모시낭송 4/14 ~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입구

[토론 및 대화모임] 너를 이야기하는 봄

C-3 세월호 추모모임
4월 14:00 416 기억과 추모의 시민적 과제로서 '기억교육'의 실천과제 모색 / 안산사회의 대화모임

[주요제] 너를 추모하는 봄

D-5 4.16 2016 안산 청소년 추모 4월 15일 17:30 ~ 20:00 분향소 출범 ~ 안산문화재단 / 단원구 호수동 800
D-6 '사랑에 그리고 기억해' 세월호 참사 2주기 청소년NCA 추모대회
4/6 13:30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 소공연장 / 단원구 초지동 607
D-7 기억의 자리 4/6 10:00 화랑유원지 안산합동분향소 / 단원구 초지동 607
D-8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모임 (안산) 4/6 13:00 화랑유원지 안산합동분향소 / 단원구 초지동 607
D-9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모임 (3월 발표) 4/7 16:00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단원구 초지동 607
D-10 소중한 생명의 꽃다발
4/6 09:00 ~ 19:00 단원고 정문 / 단원구 단원로 55
D-11 단원고 유물인기 4/6 19:00 ~ 단원고정문 / 단원구 단원로 55
D-12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대회 4/7 화랑유원지 안산합동분향소 / 단원구 초지동 607
D-13 416 기억하는 주민연대 4/23 외동체육공원 / 단원구 외동 83-1

☎ 문의 : 031-483-0416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월 4일 공편, 전시, 토론회, 추모행사					1 B-1 Rainbow Space (4~25일) B-3 기억의자리, 함께-4/6 B-4 기억의자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B-5 두 번째 봄 - 그리움이 꽃이 되어 내리는 날에 4/30 D-1 9:00 304명의 이름을 사담의 이름으로 담다.	2
3 D-2 17:00 그려, 잊을 수 없다.	4	5	6 C-1 19:00 416 시민의소리(304명) '고마워, 기억해줘서'	7 A-1 18:00 자유와합동행사	8 B-2 전시, 볼 : 너희를 담은 시간 107(4/27)	9 A-2 17:00 순화한 기억여행
10 D-3 11:00 기억의자리 C-2 14:00 다시 봄이 울려오	11	12	13 D-4 19:30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교연합예	14 C-3 세월호추모토론 • MCO 416 기억과 추모의 시민적 과제로서 '기억교육'의 실천과제 모색 • 19:00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집결전 및 생존자와 함께 하는 베품서포.	15 A-3 19:30 2016 416추모음악회 'Remember Forever' D-5 416 2주기 안산청소년 추모 추모제	16 D-10 9:00 소중한 생명의 꽃다발 D-7 13:00 기억의 자리 D-8 13:00 경기 D-6 13:30 사랑에 그리고 기억해 D-9 16:00 추모모임 D-11 18:00 단원고 유물인기 D-8 사랑의 동행 C-4/3
17 D-12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대회	18	19	20	21 C-3 세월호추모토론 • MCO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 찾기	22	23 D-13 13:00 416을 기억하는 주민연대
24	25	26 C-4 MCO 현대에게 어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지? 대화모임	27	28 C-3 세월호추모토론 • MCO 416참사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가치 모색 위한 생애토론회	29	30

진정한 치유의 시작,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일

영화 ‘나쁜나라’ 김진열 감독의 목소리를 듣다



☎ 영화 ‘나쁜나라’ 공동체상영 문의 : 시네마달(02-337-2135)
글·사진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2014년 여름, 안산과 팽목항을 바쁘게 오가던 김진열 감독을 만났을 때만해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될 거라 예상치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모님들을 따라 진도, 청운동, 광화문, 국회를 동행하던 김 감독은 작년 12월에야 어렵게 ‘나쁜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내놨다. 관객들이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극장에 고요하게 울리던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감기몸살을 앓고 난 것처럼 몸이 쭈서왔다. 그 아픈 시간들을 편집하며 몇 번이나 그 안을 들여다봤을 감독의 마음도 그렇게 오래 쭈서왔을 것이다. 세월호 2주기 즈음에서 안산에서 만났던 김진열 감독의 차분하지만 독심 있는 목소리를 전해본다.

Q.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게 된 계기?

A. 주로 여성과 관련된 독립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오다, 안산과 연을 맺게 된 건 6년 전부터 이곳에서 미디어교육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록 작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시민들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빙 할 필요를 느꼈죠. 처음에는 영상작업으로 시작하다 글이나 사진, 기록 보존 쪽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물로 영상팀은 ‘나쁜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고, 구술기록팀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란 책을 출간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도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Q. 참사이후에 생긴 근본적인 고민과 바람

A. 안산에만 28개의 세월호 관련 치유 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만나 뵈던 가족들 대다수는 안다니고 계셨어요. 먼저 간 아이에게 미안해서 도저히 상담을 못 받으셨죠. 한 전문가는 근본적인 치유는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시작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분들이 치유하려면,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상조사가 이뤄져 사회적인 시스템이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달 안 지난 지점부터 애도의 시간이 끝났다고 자꾸 상황들을 피하지만 하면 사회시스템은 변할 수 없거든요. 또, 참사 이후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당사자인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Q. 유가족 분들에게 안산이란 지역이 가진 의미

A. 참사가 일어나고부터 부모님들이 안산이란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과 반응이 달랐거든요.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도 어머님들이 안산에만 오면 그렇게 긴장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안산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말도 안산에 와서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가족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어 간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 듯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와 전부를 보낸 시간이 여기 있으니까요.

Q. 기록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A.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을 향해 갈 때 그 기저에는 아이들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기록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고, 작업을 하면서도 아이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참사의 진실을 알게 되려면 20~3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때까지 이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안산품愛
안긴 대부도

풍요롭고
다채로운
자연이 주는 선물,
천일염

동주염전을 찾아서

작지만 강한 나라 한반도, 일찍이 많은 침략전쟁을 치뤘고,
한때 일본에 지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빼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시기이며,
동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가 소금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여기 대부도에 위치한 동주염전이다.

대부도의 60년 역사, 동주염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로부터 어른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충고를 할 때 종종 쓰이던 말이다. 이처럼 소금은 빛과 함께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널리 쓰여 왔다. 이는 소금이 예로부터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방식으로 인식되는 소금의 석출 방식은 크게 일제 강점기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소금생산 방식은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된 소금을 자염이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생산방식과 일본의 개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태안에서 그 방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일염의 생산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방식으로 정제염이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많이 감췄으나, 장인들의 고집스러움 덕분에 아직 몇몇의 생산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중 한 곳이 대부도의 동주염전으로 이 곳은 일제강점기 직후에 만들어졌다. 과거 대부도에는 여러 염전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는 염전은 동주염전이 유일하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천일염의 전통생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다른 염전들과 차별화된 옹기바닥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듯 가슴 아픈 시기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동주염전은 현재 생산 방식의 명맥을 유지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생산 환경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또한 대부도의 소중한 지역자원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바다가 주는 여유로운 풍광과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탄생한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금. 안산에는 이렇듯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인 대부도가 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삶의 필수 요소인 ‘소금’을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

글 박진

다음 여행지 _ 대부도의 자랑, <대부 포도를 찾아서>

소금의 종류와 천일염의 효능

소금의 종류는 크게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 한다. 이 천일염을 물에 녹여 씻은 뒤 수분을 증발시켜 재결정화한 것이 꽃소금으로 알고 있는 정제염, 대나무 안에 넣어 고온에 구워낸 것이 죽염이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미세한 구멍을 가진 이온수지막으로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고 얻어진 염화나트륨의 결정체인데 이 정제염에 조미료를 섞으면 맛소금인 가공염이 된다.

정제염은 염화나트륨이 99.8%를 차지하는 반면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농도가 80% 정도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많다. 천일염에 들어 있는 미네랄은 염화나트륨이 몸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고, 우리 몸에 유용한 영양염류를 충분히 확보해준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고혈압 등 여러 성인병의 유발 인자를 억제한다.

생활 속의 천일염

생수에 천일염을 약간 타면 짠맛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체내에 수분 흡수가 더 잘되며, 커피에 소량의 천일염을 넣어 마시면 탄닌의 성분을 중화시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준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 스푼 풀어놓고 족욕을 하면 피부 속 노폐물이 제거되어 피로도 가시면서 기분도 한결 가벼워진다.

도마에 천일염을 뿌려 닦아주면

도마 사이에 끼어 있던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살균과 소독에도 효과적이다.

매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도 천일염으로 제거할 수 있다.

천일염을 매트에 조금씩 뿌려서 살살 문질러준 후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천일염에 먼지가 묻어나오는 동시에 살균소독 효과까지 볼 수 있다.





2016안산국제거리극축제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13개국 50여 작품 선보인다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국내 32작, 해외 18작 등 총 13개국 50여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슬로건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개·폐막작 ‘천사의 광장’과 ‘카오스모스’

축제의 개막작은 프랑스 팀인 ‘Compagnie Gratte ciel’의 ‘천사의 광장(Place des Anges)’이다. 순백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5월에 눈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깃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가벼운 깃털이 광장과 관람객의 머리 위로 소복하게 쌓이면 멀리 떠나보낸 그리운 이들의 천진한 웃음이 들려온다. 폐막작은 ‘Grupo Puja’의 ‘카오스모스(K@OSMOS)’다. 스페인 팀인 라이브밴드의 파워풀한 연주를 배경으로 관람객의 눈앞에서 우주로의 항해가 펼쳐진다. 하늘 높이 올라간 둥근 구조물에 매달린 배우들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아찔한 몸짓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폐막작인 ‘천사의 광장’과 ‘카오스모스’는 공중을 무대로 한 에어리얼퍼포먼스로 광장 어디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창작지원 프로그램’ 통해

안산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제작 육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안산이라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는 올해부터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6작품(국내 5, 해외 1)을 선보인다.

종교적 성지를 찾아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행렬과 연결시켜 축제 관람객과 함께 안산 지역을 걸어 호평을 받았던 ‘안산순례길’은

올해 축제에서 ‘공식참가작’으로 초청받아 다시 한 번 안산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스페인의 ‘피라 타레가 거리예술축제’와 축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로의 작품을 교환 초청하여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동제작 방식으로 완성한 작품을 축제에서 공연한다. 스페인의 작가 Carla Rovila는 안산의 청소년들과 메일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워크숍을 통해 거리예술작품 <바다너머>를 창작한다. 작품을 만들어나가고 자신의 이야기가 연극이 되는 경험과 동시에 배우가 되어 공연을 한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 시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지난해 축제에서 ‘시민의 건축’, ‘그랜드 컨티넨탈’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올바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16년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 그중 기획프로그램 ‘도시 발언대’는 열린 공간임에도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광장을 안산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안산시민들은 축제기간 동안 광장 곳곳에 미리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원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종이상자를 이용해 다함께 공동의 건축물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체험형 설치미술 프로그램 ‘시민의 건축’은 2016년 플라스틱 칼라박스로 소재를 바꿔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이 안산 소재의 미술관, 공연장, 체험장을 연계 탐방할 수 있도록 관객 편의 서비스도 높인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031-481-0536), 문화예술과(031-481-206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ASAF2016 개막작, 천사의 광장



ASAF2016 폐막작, 카오스모스

귄터 그라스가 살아 숨쉬는 그의 '서재'로의 초대

양철북의 저자 '귄터 그라스' 특별전
5월 8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려

단원미술관에서는 오는 5월 8일까지 귄터 그라스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소설 <양철북>의 저자이자 20세기 마지막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 특별전으로 판화작품 80여 점과 조각작품 10여 점, 자필 시원고, '양철북' 포스터 등 귄터 그라스의 문학과 미술이 접목된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된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귄터 그라스의 생애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삶 자체가 예술인 귄터 그라스, 문학가 이전에 화가였다!

귄터 그라스가 미술을 전공하고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소개할 만큼 문학작가 이전에 화가 겸 조각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곧바로 달려가 선채로 글을 썼다고 전해진다. 그는 또한 탱고와 재즈에 능했고 트럼펫을 즐겨 불었으며, 요리와 사진까지 좋아하는 한마디로 삶 자체가 예술이었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안산시가 지닌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도 상통

그는 예술가이면서 독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역사·정치관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정권의 부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행동하는 예술가였으며, 나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과거 청산에도 앞장섰다. 그가 독일작가이면서도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인류적 관점에서 시대적 현안들을 돌아보는 세계시민의 태도를 견지했던 것은 독일, 폴란드, 슬라브가 얽힌 그의 성장배경과 시대적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귄터 그라스의 인간존중 사상과 민주주의 정신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안산시가 지닌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진행

전시와 더불어 매주 토요일에는 소설, 문학,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명강사가 들려주는 귄터 그라스의 삶과 작품에 대한 특별 인문학 강연이 열린다. 그라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양철북(1979)>과 귄터 그라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또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독일문화원 추천으로 <베를린 천사의 시(1987)> 등 작품성이 뛰어난 독일 영화 7편을 상영하여 관객들에게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각 재료비 5천원으로 '귄터 그라스 양철북 만들기', '펠트천 위에 양철북 수놓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귄터 그라스의 문학과 미술,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시간이 될 것이다.

글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전시기간
5월 8일까지(오전 10시 ~ 저녁 7시)
관람료
일반 4,000원(안산 시민 2,000), 학생과 미취학아동(5세 이상) 1,000원
문의
단원미술관 031-481-0504

1. 귄터 그라스의 정원과 스튜디오
2. 귄터그라스, 메인 포스터
3. 귄터그라스, 텔크테에서의 만남
4. 귄터그라스, 손 안의 넘치





수변공원은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호수공원까지 시화호 주변 갈대 하천을 끼고 약 3.5km 이어지는 길이다. 상류인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정화된 물은 이 길을 따라 흘러 안산천과 만나 다시 시화호로 흘러 호수를 살린다.

물길 따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기에도, 천천히 걷기에도 좋다. 너른 갈대밭 산책길에는 갯벌전망대, 노을전망대 등 데크와 벤치가 구성되어 있어 걷다 쉬다 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혼자 걸어도,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벚꽃엔딩을 들으며 걷기에도 좋은 봄날이다. 사철나무에도 새순이 돋고 산책로 옆 철쭉도 연두색이 완연하다. 봄나물이 자라는 기슭에서 쭈욱을 캐는 사람들도 보인다.

가시 많은 해당화 가지를 움켜쥔 때까지처럼 자전거 핸들을 부여잡고 수변공원을 달린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 가로등을 밝히듯 자전거 바퀴가 돌 때마다 겨우내 움크렸던 몸엔 활력이 생기고, 핸들을 움켜쥔 손아귀에도 불끈 힘이 솟는다.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는 잠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 간신히 오르막에 다다르고 나면 왕복 6차선의 아스팔트길이 나온다.



운동하기 좋은 숲 ;

수변공원을 달리며 봄을 만끽해요



차량진입이 통제된 넓은 도로에는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와 외발 전동 스쿠터, 마라톤과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노란 헬멧을 쓴 아이의 자전거를 밀어주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인다.

살며시 손을 놓는 아버지에게 아이는 소리친다.

“아빠! 손 놓지 마, 놓으면 안돼!” 아빠를 믿고 페달을 밟는 아이.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겠지...

돌아오는 길, 벤치에 앉아 물비늘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본다.

갈대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으려 물밑에서 수련대고 있다.

떼를 지어 먹이사냥을 하던 청둥오리가 떠나간 물가에 왜가리가 홀로 물음표를 찍으며 서 있다.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몽글몽글 구름 사이로 어느새 해가 진다.

금빛으로 물드는 낙조를 바라보고 있으니 “밤에 핀 벚꽃 / 오늘 또한 옛날이 / 되어 버렸네”라던 ‘고바야시 잇사’의 하이쿠가 탄식처럼 와 닿는다.

하늘을 품은 하천이 물길 따라 서서히 흘러간다.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

도서관주간·세계 책의 날 도서관 문화행사

안산시 도서관에서는 4월 도서관주간(4. 12 ~ 4. 18)과 세계 책의 날(4. 23)을 맞아 인문학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중앙도서관은 주호민 웹툰작가의 '한국 전통신화'(4. 23)를 준비했으며, **관산도서관**은 '안소영 작가와의 만남'(4. 19)을 통해 윤동주의 삶과 시에 대해 알아본 후 윤동주 시를 돌려쓰는 '켈리라이팅'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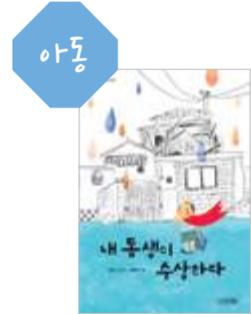
원고잔도서관은 개관 3주년 기념행사로 샌드아트 공연(4. 16)으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 '취미미술'(4. 14 ~)을 8주간 운영해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성포도서관**의 '아기공룡 토르: 황금알을 지켜라'(4. 27) 공연과 **당곡작은도서관**의 책공연 '평강공주와 온달바보'(4. 19)도 놓치지 말자.

도서관명	행사명	일시	대상	내용
중앙	도서관농장터	4. 16(토) 14:00~17:00	가족단위 시민	시민참여 도서 나눔장터 운영
	온가족 놀이마당극 '힐힐~ 간다'	4. 17(일) 14:00~15:00	시민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한 놀이 마당극
	주호민 웹툰작가 특강	4. 23(토) 14:00~15:30	시민	웹툰작가 주호민의 한국 전통신화 특강
감골	야간인문학 '뮤지컬 Talk'	4. 7~4. 28 (목, 4회) 19:00~21:00	일반시민	뮤지컬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 알아보기
	관산	안소영 작가와의 만남	4. 19(화) 19:00~21:00	시민
성포	원화전시	4. 5~4. 30	시민	어린이원화 '해는 희고 불은 붉단다'
	공연 '아기공룡토르: 황금알을 지켜라'	4. 27(수) 18:00~18:50	유아, 아동, 학부모 100명	신비한 불사조의 알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아기공룡 토르 이야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토론	4. 20~6. 22 (수, 10회) 14:30~16:30	초등 1~3학년 20명	토론, 연상화 그리기, 연극놀이, 브레인스토밍 등 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동화	4. 19~5. 24 (화, 6회) 16:00~17:40	6~7세 유아 20명	연령에 맞는 다양한 그림책으로 미술, 인형동화, 패널 시어터 등 독후활동
상록 어린이	희망충전소 '여심을 움직이는 숨겨진 여행지'	4. 16(토) 15:00	시민 80명	여행인문학 특강으로 여심을 움직이는 숨겨진 여행지 알아보기
	독서메모 습관을 길러 주는 '북파일' 제작	4. 16(토) 10:00~12:00	초등 2~5학년 20명	책을 읽은 후 작성한 감상문을 보관할 수 있는 독서파일 제작
	책은 나의 좋은 친구	4. 16(토) 15:00~16:00	시민	어린이 독서습관 함양을 주제로 한 매직 북화술
부곡	인형극 '브레멘음악대'	4. 16(토) 1:00~12:00	어린이 및 가족 100명	명작동화 브레멘 음악대 복합인형극
	주말도서관 책놀이터 '쿠키 클레이'	4. 16(토) 13:00~16:00	유아 6~7세 및 보호자, 초등 32명	재미있는 캐릭터 쿠키 만들기
일동	꽃씨들의 합창	4. 16(토) 10:00~12:00	가족(유아/초등) 10팀	꽃의 한살이에 대해 배우고, 꽃씨 심기
선부	개구쟁이 꾸러	4. 22(금) 16:00~17:00	유치원생 및 학부모	전래동화 각색하여 재미와 감동 전달
	몸으로 읽자! 신나는 연극놀이	4. 20~5. 7 수 15:30~17:00 토 14:00~15:30	초등 1~3학년 15명	책 속 등장인물이 되어 함께 공감하고 표현해 보는 연극놀이수업
원고잔	샌드아트 공연	4. 16(토) 17:00~18:00	어린이 및 가족 100명	모래와 빛을 이용한 공연
	취미미술	4. 14~6. 9(화) 10:00~12:00	성인 15명	데생, 수채화, 유화 등 기초부터 배우는 미술
반월햇빛 작은	만들기 일일특강	4. 23(토) 14:00~17:30	6~7세와 보호자/ 초등학생	매직스토리텔링과 만들기 놀이
본오1동 작은	물병 파우치 만들기	4. 16(토) 13:00~17:00	유아 10팀, 초등·청소년 15명	가방에 쓱 들어가는 물병 파우치 만들기
안산동	건국신화로 만나는 우리역사	4. 8~4. 29(금) 16:00~17:30	초등 1~3학년 20명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신화로 알아보는 역사수업
사3동	어린이 과학독서토론	4. 20~6. 8(수) 15:00~16:30	초등 1~3학년 20명	과학책을 통한 실험과 관찰로 재미와 창의력을 높이는 수업
당곡작은	이야기꾼의 책공연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4. 19(화) 16:00~17:00	시민 100명	이야기꾼의 책 공연
외동 책읽는방	내손으로 꾸미는 공예활동	4. 20~5. 18 (수, 4회) 16:00~17:30	성인 10명	토탈 공예 수업

문의 :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4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 동생이 수상하다

저자 성완 / 출판사 사계절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해, 조용한 시골마을이 점차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과 끝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칫 지루하거나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환상'과 '발랄'함으로 감동은 물론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저자 심은경 / 출판사 푸른책들

1388상당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저자의 경험과 긍정적인 의지가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친구, 가족, 사회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현실적인 캐릭터들로 담아내 세밀하면서도 담백하게 그려냈다.



배려

저자 한상복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너와 내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보여주는 한국형 자기계발 우화다. 주인공 '위'는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온 현대인의 상징이다. 위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자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내가 먼저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낄 수 있다.

자료제공_중앙도서관

사람이 좋다, 대부도가 좋다

우리 가족은 대부도에서 살아요.

“친정아버지가 농업관련 공무원이셔서 농촌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었어요. 덕분에 농촌으로 시집가는 것에 대해 흔히들 생각하는 집안의 반대도 없었죠.”라며 밝게 웃는다. 대부도에서 남편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남지은 씨는 아들 둘을 낳고 키웠다. 대부도의 맑은 공기와 넉넉함은 아이들을 온순하게 키워줬고, 부부는 그것에 만족했다. 대남초 5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준, 박상아 군은 “엄마, 아빠랑 늘 함께 있어서 좋아요. 동물도 키우고 직접 키운 포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남지은 씨는 남편이 컴퓨터 수리를 다녀와서 내미는 물건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 수 있다. 고소한 냄새 진동하는 치킨, 단내가 물씬한 포도 몇 송이, 호박 두어 개 등 도시와는 다른 출장비다. 비교적 간단한 수리를 했을 때는 출장비를 받지 않으려는 남편과 무엇이 라도 주려고 하는 주민 사이에 정겨운 씨름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대부도의 생활을 더욱 살찌게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부도에서의 생활이 녹록하기만 할까? 아이가 아프거나, 교육, 체험학습 등 도시에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또는 획일화된 생활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젊은 세대까지 그 관심의 폭이 꽤 넓다. 남지은 씨는 23살에 남편과 결혼해 대부도에 터를 잡았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였고, 대부도가 고향인 남편이 고향에 가서 살자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부도 생활이 올해 13년이 되었다.



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터였다. “대부도에는 병원이 없어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난감하죠.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집안에 웬만한 상처는 치료할 수 있을만한 상비약이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대부도를 나서서 서울에 다녀온다든지, 안산시내에 사는 지인과 연결해 아이들 체험학습을 함께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루지 않아 오히려 주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 놓치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라며 웃는다. 최근 대부도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부도에서의 삶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 학급이 10여 명 내외로 교사와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감하고 교사의 섬세한 보살핌이 가능하고, 선후배간 의형제를 맺어 저학년 동생에게 고향년 형이나 누나들이 악기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돈독한 정을 나누는 교실이 대부도의 자랑이라

고 한다. 남편의 컴퓨터 일을 정리하고 가업인 포도농사를 준비하는 남지은 씨 부부의 봄은 분주하다. 선배 농부의 조언으로 무농약 포도재배를 위해 거위와 닭을 부화시켜 키우고 있다. 어느 정도 자란 후 포도밭에 방사하면 잡초 제거와 양질의 퇴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초보 농부 남지은 씨는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일 수도 있을 텐데 기꺼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선배님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라고 말한다. 36살 젊은 주부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대부도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 “좋은 사람들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대부도가 너무 좋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여유로운 삶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해요.” 도시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농촌에서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농촌의 맨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남지은 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김은미 명예기자_iam34@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그림을 사랑하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모입니다

언제나 푸르게 가꾸고픈 미술 동호회 ‘푸름회’



꽃 그림이 가득한 화실에 회원들이 모였다. 봄이어서 아름다운 꽃그림이 많은 화실에서 모이는 게 좋겠다 싶어 장소를 정했다. 꽃을 닮은 듯 회원들의 밝은 미소에 그림을 사랑하고 푸름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흠뻑 묻어난다.

푸름회 회원들은 “그림으로 서로 알게 되었지만 서로 경조사를 챙길 만큼 가족적이고 마음이 잘 맞는다. 친구이자 가족이며 삶의 동반자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푸름회는 2005년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정기적인 모임과 매년 스케치 여행 등을 통해 푸름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푸름회는 6명의 회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매년 전시가 열릴 때마다 많은 작품을 출품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각자 화실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을 한다. 올 6월에는 유럽으로 스케치 여행을 간다. 마음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모아 떠나는 스케치 여행으로 좋은 그림의 영감을 얻어오길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푸름회 남승미 회장은 행복을 주제로 반추상적 그림을 그린다.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식탁이라는 생각으로 식탁 위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그린다. 혼자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과 커피 한 잔의 행복감을 반추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식탁에 한정을 두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느껴지는 행복을 이미지화해 그린다. 그 외 각 회원들은 소나무, 노을, 꽃 등 다양한 소재로 자기만의 느낌을 화폭에 담아낸다.



푸름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단원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림의 열정이 피어나는 푸름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2016시즌 홈 개막전 승리

4월 3일 고양 자이크로 상대로 최보경 선수 결승골... 1:0으로 이겨 시 승격 30주년 기념해 승용차 등 300개 경품, 시민께 또 다른 기쁨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한국 프로축구 2부 리그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4월 3일 오후 3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첫 홈경기에서 안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은 전반 33분 등 번호 15번 최보경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 고양 자이크로 팀을 1:0으로 눌렀다. 한지호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최보경 선수가 몸으로 튕겨 골인으로 연결한 것이다. 안산 초지고등학교 출신인 최보경 선수는 "내 고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골을 넣게 돼 경기하는 내내 마음이 들떴다."며 "안산에 정이 깊다. 오늘 날씨가 안 좋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 한 분 한 분 더 많은 팬들이 보러 오시게 하겠다."고 경기를 승리로 이끈 소감을 전했다. 안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은 이날 경기에서 득점은 1점에 그쳤지만 슈팅은 11개에 이를 정도로 놀라운 공격력을 보여줬

다. 끊임없는 공격으로 골문을 두드리면서 상대팀 고양 자이크로가 전반전을 수비만 하면서 보내게 했다. 최선의 방책이 공격임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홍실 감독은 "홈 개막전이지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며 "곧 전역을 앞둔 선수들도 있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지난 동계훈련의 결과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은 이날 승리로 인해 3시즌 연속 홈 개막전 승리 기록을 세웠다. 2년 전인 2014년 3월 29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는 대구FC를 3-2로 눌렀다. 지난해 3월 29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도 충주 험멜을 1-0으로 눌렀다. 올 시즌 개막전인 이날 경기에서도 고양 자이크로에 승리하면서 홈 개막전 강팀의 이미지를 굳혔다.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은 올해로써 팀 창단 3주년을 맞았다. 2014년 안산을 연고지로 창단한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은

올 시즌부터 팀명을 '안산경찰청'에서 '안산무궁화'로 변경하고, 유니폼 색도 기존의 파란색 대신 안산시를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바꿨다. 또한 시는 시 승격 30주년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단 3주년,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홈 개막전인 만큼 승용차 1대와 냉장고, TV, 자전거, 라식 상품권, 서울랜드 BIG5이용권 등 300개에 달하는 풍부한 경품은 안산시민께 또 다른 기쁨을 줬다. 사3동에서 아들과 함께 경기를 보러 온 김태균 씨가 1등 경품 승용차를 받았다. 이날 와~스타디움에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4,072명에 달하는 팬들이 함께해 홈 개막전을 지켜봤다. 한편 4월 16일 오후 3시에는 충주 험멜과의 홈경기 2차전을 앞두고 있다.

글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건강한 출산

상록수보건소 야간 출산준비교실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탄생 기원



"아기를 낳는데 초산부가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이를 낳는 경산부가 두려워할까요? 경산부요? 초산부요? 둘 다? 네, 정답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초산부나 경산부의 출산의 두려움은 똑같다고 합니다. 초산부는 처음이라 두렵고요. 경산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아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산이든 경산이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4월 7일 목요일 오후 임신 부부 30쌍이 모인 상록수보건소 야간출산교실에서 송영아 강사(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위와 같이 말하며 '2016 제1기 야간 부부 출산준비교실'의 문을 열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야간출산교실은 3회 차로 진행된다. 첫 날 첫 시간에는 생명의 신비와 태교에 대해, 두 번째 교육에서는 분만과정 이해시간이 마련돼 진통과 통증완화 분만법에 대해 배우고 실습할 수 있다. 끝 시간에는 산모와 신생아 위생관리법 시간으로 남편들이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알려준다. 상록수보건소 야간 출산준비교실은 직장일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4월과 6월, 11월 총 3기로 진행된다. 임신 16주가 넘는 부부는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건소에서는 이밖에도 태교미술, 출산준비교실, 조부모 육아교실 등 임신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기를 가진 여성들은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갖고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태아와 산모를 위한 철분제와 엽산제 등 영양제도 제공받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 안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철분제를 받으러 왔다가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안내로 야간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하게 된 임신 29주차 정향미(29세) 김성근(32세·사동) 씨 부부. 남편 김성근 씨의 "아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는 말에 아내 정향미 씨는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고 남편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출산에 대한 마음들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건한 자세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두 부부의 모습이 무척 다정하다.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 출산을 축원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5) 글·사진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봄날의 나눔장터 100배 즐기기

넷째 토요일, 안산문화광장 재활용 나눔장터에 가볼까

토요일 오전이었지만 재활용 나눔장터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거의 매년 방문했지만 한눈에 봐도 올해처럼 성황을 이룬 적이 없던 것 같다. 5년째 나눔장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장미경 씨는 첫해에는 50여 명이 판매자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벌써 200명이 넘는 판매자가 번호표를 받아 물건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시가 넘었는데도 신청부스 앞에는 번호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왔고, 봉사자들은 바쁘게 빈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봄날의 나눔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라, 타인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어느새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순간을 만끽했다. 5살 아이가 꼼꼼하게 신발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건 파는 아주머니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아이들은 제법 당당하게 어른들과 어울리며 물건을 팔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가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모금을 위해 책을 팔고 있었다. 고잔도 3학년 학생 7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사나래'에서 함께 나왔다는 아이들은 역사공부를 시작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재활용품을 팔아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 나태원 학생은 “처음에 뭘 팔까 고민했는데 각자 어렸을 때 읽었지만 지금은 안 읽는 책이 많아 이번 달에는 책을 팔게 됐고, 다음 달에는 또 뭘 팔까 생각하고 있다.”며, “배우는 기분으로 가볍게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셔서 놀랐다.”고 했다. 아이들의 활기찬 기운과 기특한 생각에 길을 지나던 많은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뭐 하나라도 더 팔아 줄까 책을 뒤적이다 기부금을 주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나눔장터를 쭉 둘러보다가 아빠와 두 아들이 어린이 용품을 팔던 돛자리 푹말을 발견하곤 웃음이 터졌다. ‘모든 수익금은 엄마 봄자켓 구입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길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푹말을 보더니 멈춰 서서 몇 개 없는 물건을 뒤적이다 아빠와 웃으며 말을 섞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왔던 다른 아빠들은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쭈그러 앉아 수다삼매경에 빠졌다. 아이들이 옆에서 다른 또래들과 딱지놀이로 빠져있을 때, 아빠들도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다. 그리고 보니 올해 나눔장터에는 아이들과 함께 물건을 챙겨와 팔고 있는 아빠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다. 재활용 나눔장터가 어느새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나눔장터에서 재활용 물품 판매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돛자리, 팔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면 된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확인서도 발급해준다 하니 한번쯤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또, 나눔장터가 열리는 날 폐가전제품이나 폐건전지, 우유 팩 등을 가져오면 친환경 물품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봄 대청소를 하면서 나눔장터에서 팔 물건들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

재활용 나눔장터 안내

기간 3월 ~ 10월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7월 휴장)
 장소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문의 안산환경운동연합 ☎ 031-486-5105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농장에서 식탁까지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안산시 생산 농산물 및 우수특산물 이 여러분의 식탁으로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기간 : 2016년 4월 ~ 10월
- 시기 : 월 1회(매월 네 번째 토요일) 10:00 ~ 17:00
-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NC백화점 앞)
- 품 목 : 안산시 생산 농산물 및 우수특산물

와~스타디움에서 만나는 태국 문화

송끄란 2016 태국 설 명절축제 4월 24일 열린다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 안산의 와~스타디움에서 태국의 설 명절 축제 송끄란이 열린다. 송끄란은 태국력(曆)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4월 13일에서 15일까지를 기념하는 축제다. 태국인들은 태양이 이 시기에 새로운 자리에 들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95%가 불교신자인 불교국가 태국은 송끄란을 맞아 전국민이 물로써 불상을 닦고 집안을 청소하며 새해맞이 준비를 한다. 지난해의 액을 깨끗이 물로 씻어 흘려보내고 가족 친지 이웃에게 존경의 의미로 물을 뿌리며 새해를 축원한다. 태국에서는 일 년 중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한 이 시기에 몸에 물기가 마르면 그 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풍습이 변모해 현재는 송끄란이 열리는 2~3일간 태국 전역에서 물 축제가 벌어진다.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빌어주는 물 뿌리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더위를 쫓는 시원한 물 축제가 되면서 이 시기에 맞춰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주할 정도로 송끄란은 세계가 주목하는 10대 축제 중 하나가 됐다. 안산 송끄란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안산에는 스마트허브에서 일하며 이곳에 둥지를 튼 태국 젊은이들

700여 명이 있다. 타지에서 설을 맞는 태국 근로자들을 위해 안산시는 주한 태국대사관과 태국 노동부와 함께 송끄란 축제를 열어 왔다. 오는 24일 와~스타디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안산 송끄란 축제에는 전국의 4만여 태국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제는 태국 민속의상 퍼레이드로 화려한 막이 오를 예정이다. 태국 노동부는 본국에서 고스님들을 모시고와 한국 내 자국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새해 복을 빌어준다. 이날 태국 근로자들은 하얀 진흙 '단소퐁'을 얼굴에 바르고 서로 물을 뿌려주며 축원하고, 태국 인기가수와 밴드 공연 등을 즐기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게 된다. 세팍타크로 시합, 여장 남자들이 벌이는 송끄란 미인대회 등 태국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들로 축제가 채워질 예정이다. 시나브로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 주민들, 그들의 고유문화 축제에 가족 나들이 겸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 이날 축제에서는 세계 3대 스프 중 하나인 '똌 양 콩'과 볶음 쌀국수 '팟타이' 등 맛이 뛰어난 태국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 문의 : 외국인주민센터(031-481-3738)
 글·사진 백미란 명예기자 _ why0218@naver.com

사람 in 텃밭



도시의 봄, 자투리 땅에 고랑을 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도시를 살리는 일이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사2동 벚꽃길

봄, 해마다 오는 봄을 다시 반겨 봄. 따뜻한 사람들과 꽃구경도 나서 봄.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
**안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전국에 자랑좀 해도 되겠죠?**
 ”



자전거 마니아이면서 자칭 안산시 최고의 라이더라고 자부하는 이웃집 소라엄마.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우리집까지 득달같이 달려와 “우리 호수공원으로 라이딩이나 할꺼냐?”라며 원기를 북돋워주는 그이 소라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싱글벙글 전화를 했다.

“글쎄 말이야. 이번에는 시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대잖아. 얼마나 좋아. 호호호.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탈수 있게 됐어. 안그래?”

“참 좋네. 나도 이번에 브라보 안산 소식지 보고 알았다니깐. 이제 우리도 자전거 열심히 타자구”

그날 우리의 수다는 오래 이어졌다. 소라엄마는 작년에 안산 자전거 대축전에도 참가할 정도로 열혈 라이더이니 소라엄마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 자전거 보험 가입은 실로 고맙고 행복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 또한 안산시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엄지 척!’이다. 소라엄마랑 통화가 끝난 뒤에는 문득 일전에 방송에 출연한 어떤 의사가 ‘두 다리가 의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바로 저거야’라며 무릎을 쳤던 내용이 떠올랐다. 씩씩하게 걷는것 만으로도 건강하다는 징표이고, 늙어서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채 생명을 연장한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두 다리로 걷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성인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즘 필자는 소라엄마 덕분에 그렇지만 주말에는 호수공원 둘레길을 자전거 타고 도는 게 일과다. 새벽녘, 상큼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을 때 행복감이 넘친다. 자전거를 타면서 내 몸이 대지의 공기와 소리와 풍경을 만나는 그것이 즐겁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듯하다. 속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속절없는 초광속의 시대에 느릿느릿 걷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기쁨은 고은 선생의 시에도 나온다.

‘내려 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이라는 고은의 시처럼, 우리는 자동차를 탔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두 다리로 걸으면서 비로소 본다. 그것의 이름은 배려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여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다.

지난 주말에도 나는 소라엄마와 함께 호수공원 둘레길을 찾아 자전거를 탔다. 그러면서 스스로 철학자가 되고 반성도 하며 삶을 되돌아 본다. 건강은 당연히 나를 찾아와준다. 안산시민 여러분, 시에서 보험도 들어줬으니 마음 놓고 자전거 타자구요!

권정예(단원구 초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일본뇌염 주의하세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활동 시
 다음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으로 피부노출 최소화
- 노출된 피부나 옷 등에 모기피피제 사용,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 가정 내 및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 방충망 또는 모기장 사용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충서식지

[집주변의 웅덩이, 인공용기(양동이, 화분 등),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 없애는 등 모기 방제에 함께 해주세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

소아(생후 12개월~만 12세)의 자녀는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을 완료해주세요.

의료기관에서는 일본뇌염(의사)환자 발생 시 법정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문의 :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481-5939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지은 엄마, 지은이 아빠 요즘 하시는 일 잘되고 있어? 오후 01:42

아니. 신제품 **개발**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했는데 같이 동업한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어 조금 힘들어해. 일도 일이지만 오랜 친구와 의견 충돌 있다는 게 더 힘든 모양이야. 오후 01:45

아~ 원희 아빠가 며칠 전에 지은 아빠 만났는데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 오후 01:42

응~ 들었어. 그날 원희 아빠랑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 조금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완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니 허를 찔리는 느낌일까? 오후 01:53

ㅎㅎ 정도였어? 아무튼 도움이 됐다니 기분은 좋다. 오후 01:42

이번 주 중에 시간 맞춰 저녁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언제가 좋은지 연락 줘. 오후 01:57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봄을 타는지 입맛이 퉁 없었는데! 원희 아빠한테 연락해보고 **금새** 연락할게. 오후 01:55

알았어. 맛 집 알아놓은 곳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오후 01:58

전송

개발은 '개발'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개발'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 냄' 또는 '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한 것으로 만듦'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금새는 '금세'라고 써야 맞습니다.

'금세'는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 소문이 금세 퍼졌다. /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이 금세 녹아버렸다.

김은미 명예기자_ iam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 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는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안산소방서

2016 여성비전센터 특강

봄바람, 숲 아카데미



우리가 원하는 미래 - 15년 후 숲의 도시 안산!
● 4.19.(화) 오후 1시 신윤권 대표(안산환경재단)

숲이 자라면 인성도 자란다
● 4.26.(화) 오후 1시 박병권 교수(경희대 생물학 박사)



해설이 있는 숲체험
● 5. 3.(화) 1팀 오전 10시 / 2팀 오후 2시 박병권 교수



사회화 물길따라 생태체험
● 5.10.(화) 오전 9시 ~ 16시 박선미 사무국장(사회화생명지킴이)

■ 특강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16. 4. 11.(월)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 (중복신청 가능)
● 수강료 : 무료(과목별 재료비 별도)

과 목	요일	강 의 일 정	기간	인원	교 육 내 용
봄바람 숲 아카데미	화	4. 19. ~ 5. 10.	4강	다수	자연과 숲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생태체험 강의
나무가꾸기-조경실무	토	4. 16. ~ 5. 14. (09:30~12:30)	4강	20명	조경수의 식별과 굴러, 접형, 병충해관리 등 현장실습
3D프린팅의 현재와 미래	금	4. 22. (13:30~16:30)	1강	다수	유망직종 3D 프린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 안내
먹거리 교실	수	4. 27. ~ 6. 1. (09:30~12:30)	6강	24명	전문목회가 숲쉬는 먹거리 문화 이해와 제조 실습 (막걸리학교 김사진)
아빠와 드론 만들기	금/토	4. 15. ~ 4. 30. (금18:00~21:00) (토09:00~13:00)	6강	10팀	내손으로 설계한 드론을 3D프린팅으로 출력하고 조립 대상 : 초등3-6학년, 중학생 자녀와 아빠가 2인 1팀
세게로 떠나는 여행	토	5. 21. ~ 6. 11. (10:00~12:30)	4강	12팀	문화체험과 워크숍 무어를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대상 : 초등3-6학년, 중학생 자녀와 부모
수납정리 특강(주간)	화	5. 3. ~ 5. 24 (14:00~16:00)	4강	30명	영역별 주거공간 수납정리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실습
수납정리 특강(야간)	화	5. 3. ~ 5. 24 (19:00~21:00)	4강	30명	영역별 주거공간 수납정리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실습
스피치리더십 특강	수	4. 27. ~ 6. 15. (19:00~21:00)	8강	20명	자신있고 주목받는 리더로 성장하는 스피치 노하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wm.ansan.net 공지사항 참고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 031-481-2761~5

30
사승적 30주년
300년가을 30년애의 300여 노

★ 2016 안산 드론 영상공모전 ★

The 2016 Ansan Drone UCC Contest
Beautiful Ansan Seen From The Sky

안산시 市 승격 30주년 기념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안산'

안산 드론 영상공모전

총상금 2천 2백만원(대상 천만원)의 행운을 잡아라!

공모기간 2016. 4. 1. ~ 11. 10. 국민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 www.droneansan.com

안산시청 공보관실 ☎ 031.481.3126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 02.6052.9634

주최 안산시 주관 KASCO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후원 안산시청, 안산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OBS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도다리의 효능

간장 질환 예방 효과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질의 함량이 적은 도다리는 간장 질환에 좋습니다.
(단 간장 질환에는 회가 좋지 않으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방지 효과
도다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도다리 고르는 방법

- 몸에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도다리가 좋습니다.
- 윤기가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도다리가 좋습니다.

* 비슷한 도다리와 넙치(광어) 구별하는 방법

- 정면으로 보았을 때 눈이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도다리입니다.
- 도다리는 크기가 최대 20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넙치(광어)는 최대 85cm까지 자랍니다.

봄에만 즐길 수 있는 봄의 전령사 도다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